

고양시 노인일자리종합센터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을 지원해드립니다

고양
나눔터
2



노인 빈곤 문제 해결과 활기찬 노년 생활 지원을 위해 2004년부터 시작되고 있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을 더욱 확대하고자 5월, 고양시에서 '고양시 노인일자리종합센터'를 개관한다.

글 최광희 부팀장(노인복지과) 사진 노인복지과

급격한 고령화와 노인 빈곤 문제

우리나라의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18년 말 기준 738만 1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14.8%를 차지하고 있다. 고양시의 경우 12만 6천 명으로 고양시 전체 인구의 12%를 차지한다.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 690만 명의 노인 세대 진입이 눈앞에 다가온 상황으로 급격한 초고령사회의 진입이 멀지 않았다.

노인 빈곤 문제 또한 심각한 상황이다. OECD에서 발표한 2019년 노인 상대적 빈곤율에 따르면 한국은 46%, OECD 평균 14%의 3.3배로 1위를 차지했다. 국민연금의 2019년 소득대체율은 44.5%로 급격한 고령화와 노인 빈곤 문제는 국가적·사회적 당면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1 고양시 노인일자리종합센터 조감도
2 할머니와 재봉틀
3 행주농가 참기름

노인일자리사업의 허브 '고양시 노인일자리종합센터'

고양시 노인일자리사업의 중심축이 될 고양시 노인일자리종합센터는 일산서구 대화로 142-16에 연면적 496㎡, 지상 4층 규모로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8억 원과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 시비 3억 원 총 15억 원으로 건립돼 5월 개관한다.

재개발 철거 예정인 능곡이음센터(덕양구 토당동 소재)와 노후된 대화이음센터(동일 사업부지 소재)를 통합한 노인일자리 작업장과 고양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고양시니어클럽 사무실까지 통합 운영해 사업 효율성 제고 및 안정적이고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을 통한 생산·매출 증대를 목표로 한다.

본 센터는 1층에 필로티 구조 주차장, 2층에 행주농가참기름 사업장, 3층에 할머니와 재봉틀 사업장 및 교육장, 4층에 고양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고양시니어클럽 사무실로 사용된다. 2019년 고양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총 151개 사업단, 5,146명 중 고양시니어클럽은 24개 사업단, 776명의 사업량을 담당한다.

다양하고 차별화된 참여형 노인복지 강화

고양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2004년 시작돼 양적 질적으로 지속 팽창해 2016년 2,866명에서 2019년 5,146명으로 3년간 평균 22%씩 대폭 확대 추진하고 있다.

특히 만 60세 이상 기초연금 미 수급 노인도 참여 가능한 시장형(서비스 제공형)을 2017년 168명에서 2019년 624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학교 급식 도우미 사업, 경로당 도우미 사업 등 총 12가지 사업으로 급여도 1인당 월 최대 40만 원까지 다양화, 차별화해 다양한 계층의 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노인에게 실질적 소득보충을 위해 2019년 2월부터 사회서비스형 보육시설 도우미 사업을 238명 규모, 1인당 월 급여 712,800원으로 오는 11월까지 10개월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고양시는 이번 노인일자리종합센터 개관을 통해 지역사회 수요와 욕구에 부응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을 확대해 참여 노인의 소득 증가, 사회참여 확대와 더불어 공익 가치 창출을 기대해 본다.

문의 031-904-2611~2(고양시니어클럽)